

韓國 女子 內衣 文化에 관한 研究
— 바지를 중심으로 —

김 선 우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과

A Study on the Women's Underwear in our country
— Based on the trousers —

Sun Woo Kim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yong Ji University

(1997. 3. 13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a historical change about the women's underwear and trousers this nation of ours until an ancient times to modern ages. Because the record of the women's trousers exist scarcely anything, the study refers to several documents, for example, the literatures of the Chinese and the Chosun Dynasty, the Koryu's fresco, the Tou of Shinra, the painting of the rock face, the archaeological dresses and genre pictures, and so on.

The folkways methods through the residents is used to collect and to arrange of an enlightened age and modern times.

Originally, the women's trousers appeared for the nomadism and the hunting in the northern distric and the northeastern provinces. Male and female, old and young wear the trousers which are the clothes native to Korea.

The trousers which are originally narrow trousers are influenced by Chinese wide trousers. The trousers at the time of Samsuk hand down until Korea.

The Skirt on the trousers is nothing but a courtesy. But gradually, it is distinguished only the trousers, and then, there are exchanged an underwear which not only the protection angainst the cold but also the beautiful.

Therefore, the form of skirt is diminished, and the underwear is simplified as the increasing status and the activity of woman in the age of civilization.

In a way, the reform trousers and Three-kingdom era trousers appeared and the Dansogok and Sogok disappeared at present. There are confirmed in my investigation of folk customs.

I. 緒 論

1. 研究目的 및 意義

服飾은 그 민족의 시대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천에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한 시대의 사회상이나 문화상이 인간의 신체를 통해 표현되는 민족성이 강한 문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겠다.

불과 100년전만 해도 우리나라 여성이 착용하는 의복은 오로지 저고리와 치마를 기본으로 하는 韓服일 뿐이었다.

그러나 개항이래 밀려 들어오는 서구 신문화의 영향은 전통문화를 위축시켰으며 그에 따라 당연히 전승되어야 할 服飾의 제도를 변화시키므로써 결과적으로 韓國여성의 服飾제도는 한복과 양복으로 이원화되게 되었다.

이러한 表衣 뿐만 아니라 內衣도 양복이 도입되면서 서구의 것으로 대체되어 우리 조상들이 고유복식을 착용하면서 어떠한 內衣文化를 이루어 변천하여 왔는가 하는 그 변천과정과 요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여자 內衣 中 上衣은 그 형태와 용도면에서 큰 변화를 볼 수 없었으나 下衣인 바지는 表衣에서 內衣로 그 용도와 형태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袴에 관한 선행 연구¹⁾는 많으나 우리나라 袴나 女袴에 대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특히 女袴를 고찰하여 시대와 문화의 변천에 따라 內衣化하여 변화되었음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內衣文化의 특징있는 변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2. 研究方法 및 範圍

본 연구에서는 전통복식에 착용하는 내의에 관한 변천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과 자료를 가지고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여자가 착용한 내의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 그 문헌이나 유물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유물을 통하여 그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 민족문화의 발생지 및 그 변천지역과의 교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지역적으로도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우리 민족의 고유복인 女袴에 대한 연구는 지극히 드물며 『三國

史記』, 『高麗史』, 『宮中撥記』, 『朝鮮王朝實錄』, 『嘉禮都監儀軌』 등 여러 문헌에서 그 기록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우리 역대 문헌에 우리 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드물어 본 연구에서는 高句麗 시대의 古墳壁畫, 新羅 시대의 토우, 암면의 벽화에 보이는 人物象이나 美術史, 出土服飾, 服飾史 등에 나타난 당시 화가들의 풍속화, 사진 등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내의(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자 하며, 현지 토착민을 통하여 그들의 경험담과 나아가 그들의 주변에서 보고 들은 자료들을 직접 口傳을 통해서 얻어내는 民俗調査法을 사용하여 개항기 이후 일제 민족수난기 때의 內衣文化를 수집·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II. 女子 內衣의 源流

1. 上古時代

고대 우리민족은 동이족을 근간으로 하여 몽고의 남부지방에 있다가 만주평야를 거쳐 한반도에까지 이주하여 정착하였으며 우리 고대服飾이 북방계통의 호복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즉 호복이라 함은 바지·저고리인 襠袴制를 말하는 것으로 몽고 Noin-Ula에서 발굴된 스키타이服飾과 동계열 형태를 갖는다.

또한 고대로부터 삼국을 통하여 내려온 중국대륙 문화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 특히 당시 상류층의服飾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 변천과정을 보면 중국服飾의 일반적인 영향이 아니라 중국服飾과 북방계服飾의 交互交步이라 볼 수 있겠다²⁾. 이는 중국에 호복이 채용되

- 1) 박경자, "우리나라 袴에 대한 小考", 한국복식논고, 서울: 신악문화사, 1981
- 김인숙, "韓國 바지 刑制考察", 한국의류학회지, Vol. 13.
- 김애란, "우리 나라 袴에 關한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김경자, "우리나라 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백영자, "우리나라 袴에 관한 小考", 대한가정학회지.
- 정명자, "우리나라 袴에 관한 研究", 한양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 16호, 1979.
- 최은수, "우리나라 여자 바지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2) 이경자, "북방계복식의 관심과 복식사연구", 복식 제 5호, p. 240.

는 기원전 308년보다 뒤늦게 성립되는 한반도에서의 삼국에 나타나는 服飾이 기원후 59년에 성립되는 중국의 복제보다도 흉노의 호복과 크게 상통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중국은 기원전 2세기 漢郡縣을 성립하면서 주변 토착 부족사회들을 크게 刺戟했다. 이 때 낙랑군은 高句麗 건국 후 약 3백년 동안 존속해 오면서 韓문화를 반도에 전하는 교량역할을 하였으나 이후 313년이 되어 북쪽의 高句麗와 서남쪽의 百濟가 협공하여 韓의 잔존세력인 낙랑·대방을 몰아내고 반도에 高句麗, 百濟, 新羅의 삼국을 建立하게 되었다. 이로써 각국의 고유문화가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服飾문화의 영역도 특색지어졌다.

2. 三國時代의 女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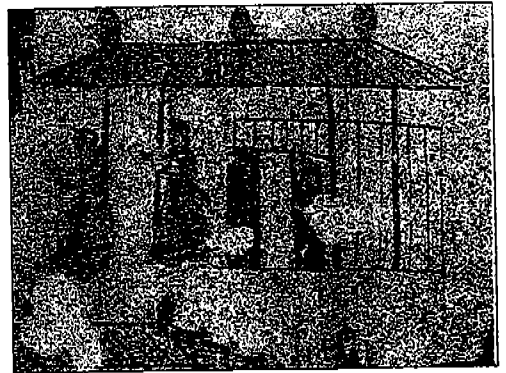
우리나라 삼국시대 여자들의 바지는 [그림 2-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高句麗 古墳壁畫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겹옷으로 바지를 입은 경우와 치마 밑에 바지를 받쳐서 입은 모습이 보인다. 여자들이 언제부터 치마를 입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벽화에 나타난 시대 훨씬 이전이었을 것이다.

『史書』에 의하면 百濟와 新羅의 服飾이 高句麗와 같다³⁾고 하였으므로 삼국에 공통적인 바지형태로 볼 수 있다.

古墳壁畫에 나타난 高句麗時代의 고는 첫째 바짓가랑이가 넓고 좁은 것의 두 종류와 둘째 바지 부리 부분의 처리에 있어서 부리를 묶은 것과 묶지 않은 것의 두 종



[그림 2-1] 여자의 袴와 치마안에 입었던 袴, 당이 있는 袴의 形態를 볼 수 있다.
자료 : 한국의 미 19(舞踊塚 壁畫)



[그림 2-2] 여자의 袴(舞踊塚 주실 동벽)
자료 : 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 연구

류 등 모두 4종류로 나타나고 있다⁴⁾. 이 중에서도 寬袴일 경우에는 바지부리 부분을 묶었으며 細袴일 경우에는 바지부리를 묶지 않는 대신 別色の 선이 둘러져 있다. 例外도 있어서 細袴이면서도 끝단을 묶지 않는 것도 있다.

또한 袴는 본시 좌우양가랑이를 合縫하여 앞뒤가 열려 있는 것이며 소위 이것을 개당고라 하여 앞뒤가 열려있지 않은 袴를 별도로 명하여 窮袴라고 했다. 韓인들은 일상적으로 개당고를 입었으며 窮袴를 입은 것은 例外의 일이었다. 이렇게 볼 때 窮袴란 개당고에 대한 상대 명으로 앞뒤 당이 막힌 바지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밑바대가 있는 것을 高句麗 古墳壁畫에서 찾는다면 [그림 2-1]와 같이 밑바대 때문에 뒤가 삐죽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지 길이는 보통 복숭아뼈까지 내려왔으며 수렴복이나 운동복 등은 길이가 짧았는데 수렴복의 경우는 정강이 조금 아래까지였고 바지부리 주위를 오늘날의 대님을 매듯 넓게 잡아매어 활동에 편하도록 했던 것을 [그림 2-3]에서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2-4,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씨름복으로 보이는 安岳 3號墳과 舞踊塚天井 받침에 나타난 인물은 바지의 길이가 대단히 짧아 오늘날의 팬티와 같았다⁵⁾. 내곤이라고도 하며 이와 비슷한

3) 魏書列傳百濟條, 『其衣服飲食與高句麗同』 續書列傳 東夷新羅 北史列傳新傳, 舊唐書列傳 新羅. 支那史料抄, 서울: 경인문화사, 1976, pp. 73, 90, 120.
4) 정명자, “우리나라 袴에 관한 研究”, 한양여자전문대학교 논문집: 제 3집, p. 274.
5) 金也之·權瑛淑, “三國時代服飾小考”,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제 5집.



[그림 2-3] 무용총의 수림복
자료: 석주선, 한국복식사



[그림 2-6] 무용총천정받침에 나타난 짧은바지



[그림 2-4] 安岳 3 號墳 壁畵



[그림 2-7] 끈으로 보이는 짧은바지(각저총 씨름도)
자료: 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



[그림 2-5]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입은 짧은바지(장천리 제 1 호분)

것으로 [그림 2-5, 7] 長川第 1 號墳과 角抵塚에도 나타나 있다. 일본의 월중근과 같이 한 개의 끈에 긴 천을 세로로 이은 것을 전면에 대고 착용하여 뒤로 끈을 매

고 縱布를 股間에 돌려 뒤에서 끈에 밀어 넣는 것이 다⁶⁾.

百濟시대 服飾에 관한 고증자료가 극히 희소하여 당시의 服飾제도를 구명하기 곤란하나 『梁書』, 『魏書』, 『周書』, 『隋書』, 『北史』, 『通典』 등 중국고사서에 “衣服言語與高句麗同”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 高句麗의 服飾제도와 大同小異 했으리라 상상된다.

統一전 新羅시대의 服飾도 그 기본형은 高句麗, 百濟와 다름없었으리라 생각되며 袴 또한 高句麗, 百濟의 바지형태로 미루어 생각하면 그리 틀림이 없었으리라 추측된다.

3. 統一新羅時代의 女袴

이러한 新羅시대의 服飾은 이후 統一新羅기에 접어들면서 古墳古塚도 불분명하고 圖像, 石物도 희귀해서 그 당시 服飾에 대해 참고 추정할 자료가 매우 부족하나 제23대 법흥왕대에 六部人의 복식과 존비제도를 정하였

6) 박춘순, “바지考”,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p. 9.

다. 이 제도는 다만 고유한 풍속에 준해서 제정해 놓은 것이라 할 것이다. 그 후 진덕왕 在位二年(648 A.D)에 이르러 김춘추가 당으로 들어가 당나라 의식을 따를 것을 청하여 당시 태종황제의 허락을 받고 겹하여 衣帶를 下賜 받아 가지고 환국하여 그 제도를 따르게 되면서부터 新羅의 고유한 의복 풍속이 중국의 풍속으로 바뀌어 지게 되었다. 또한 부녀자 복식도 중국과 같았다고 한다⁷⁾.

삼국을 통일한 후 태평세월이 계속되면서 점차 服飾 제도도 문란해져서 상하의 구별이 없고 사치에만 흐르게 되자 제24대 흥덕왕 9년(826~836 A.D) 服飾禁制⁸⁾을 내리게 되었다.

가. 服飾禁制에 나타난 女袴

이 금제는 흥덕왕 9년(834)에 공포된 것으로 금제 그 자체보다 금제를 위하여 설정한 項目에서 新羅服飾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표 2-1>는 옷감의 명칭으로 신분에 따라 옷감을 규제하므로 사치를 막고 골품제를 중심으로 한 신분제도로 옹호해 보려는 의도에서 내려진 것 같다. 또 여기서袴는 하체의 기본 服飾으로 남자가 공용으로 입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여자의 경우는 이미 기본 服飾이 4, 5, 6세기경에 고에서 상으로 옮겨갔다. 하지만 고의 착용은 상과 함께 계속 착용했을 것이다. 이것은 統一新羅전, 삼국의 공통된 의복풍속이 그대로 습용된 것이라 하겠다.

<표 2-1> 新羅時代 흥덕왕 服飾禁制中の 女袴

階級 特性	眞骨大等	六頭品	五頭品	四頭品	平人
女	禁 罽繡羅	禁 罽繡錦羅 總羅金泥	禁 罽繡錦羅 總羅金泥 野草羅	只用 小文綾 縵縵이하	只用 縵이하

*자료 :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1994, p. 61, 참조

그러나 아직 여자의 衣次에 平人女가 縵이하로 되어 있고 이것이 眞骨女에 있어서는 金泥같은 것을 올린 것을 보면 하층인은 바지를 계속 겹옷으로 착용했을 것을 생각된다⁹⁾. 조선시대 여자의 바지는 용변에 편리하게 股間을 터서 접쳐지게 마름질되어 있다. 상대에는 남자 바지도 그렇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치용관복에도 袴은

袴와 같이 뒤가 터져 있었으며, 궁중에는 고대 양식이 남아 있기 마련이므로 상대에는 남녀 구별없이 다 아래를 터 놓은 바지를 입고 있었을 것이다.

나. 日本 정창원 遺物속의 女袴

新羅의 服飾遺物이 없어 일본 상고시대의 服飾에서 그 모습을 보면 「구당서」 왜국전에 「衣服의 制式이 新羅와 매우 같은 類이다.¹⁰⁾라고 하였다. 또한 일본 정창원(正倉院)에 보존되어 있는 유물로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정창원의 연혁 및 유품에 관하여 알아보면¹¹⁾ 정창원이란 일본 나라(奈良)에 있는 東大寺의 창고로서 염직물 등이 전래 품으로 보존되고 있어 당시의 동아시아 염직물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창원의 寶物은 지상에서 千年이란 긴 세월을 거쳐 傳世된 것으로서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어 제작 당시와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유품을 통해서 당시의 우리나라와 중국 및 동북아시아의 문화 뿐만 아니라 唐朝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정창원의 바지는 朝鮮時代의 바지와 정창원의 白縵袴, 布袴와 유형이 비슷하고, 朝鮮시대의 속곳과 [그림 2-29] 布袴 1호의 유형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統一新羅시대의 여인들이 정창원의 바지와 같은 것을 입은 것으로 추측된다.

4. 高麗時代의 女袴

가. 文獻 속의 女袴

高麗의 服飾을 알아보는 데는 유물, 회화, 조각 등

- 7) 김부식, 신고열譯解, 삼국사기 雜誌, 第二服色, 서울: 동서문화사, 1976. 「文武王在位 四年又革婦人之服 自此已後衣冠同於中國」
- 8) 김부식, 上揭書, pp. 322~323.
- 9) 김동욱, 前揭書, p. 41.
- 10) 舊唐書倭國傳, 「衣服之制 頗類新羅」, “7, 8세기 일본 나라 정창원의 모든 복식은 중국식이 가미된 것이고, 그 기악인 복식은, 이것이 백제에서 건너갔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것은 당연히 한반도 통일전후기의 복식을 그대로 간직 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김동욱, 前揭書, p. 11.
- 11) 林良一, 昭和 41 年, 1966, 「シルクロードと正倉院」, 東京: 平凡社, p. 17.
주성희, “일본 정창원의 「吳女背子」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pp. 4~6 제인용.

자료라고는 별로 없고 高麗史나 인종 6년(1128年)에 宋나라의 使臣으로 高麗에 왔던 徐兢이 체경 1개월간의 견문을 기록한 『宣和奉使 高麗圖經』이 있다. 그래도 상고시대의 服飾에 있어서는 古墳壁畫나 조각 및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등에서 시각적으로 그 면모를 찾아 볼 수 있었는데, 高麗時代에 와서 이러한 유물적 자료마저 결핍되어 고증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 있다.

여기에서 고려복식의 변천을 대별하여 3기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新羅의 구제를 수용하면서 중국의 오대송의 복식을 따라 입게 된 전기이며 또 하나는 중간의 원의 服屬下에서 蒙古服飾의 영향을 받은 중기이고 끝으로는 원의 복속에서 벗어난 자주적인 服飾改革을 계획하기도 하여 보면서 새로 일어난 明服飾의 영향을 받게 되는 시기이다.

서궁이 高麗圖經에서 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복으로서 白紵窮袴, 白袴 등을 입었다고 나오며, 여자의 경우는 귀부인이 남자와 같은 白紵布를 입었으며 바지는 文綾으로 만든 寬袴에 안은 生紗로 바쳤고 그 통을 넓게 한 것은 몸에 붙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류계급의 여자들은 통넓은 겹바지로서의 관고를 입는 유습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관고는 상류계급의 것이니 하층계급의 부녀자는 기동에 편리한 궁고 형식의 것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舟人條의 下無袴襠란 말은 고를 입지 않는 것이 아니라 狹鼻褌(쇠코잠방이)를 입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쇠코잠방이는 褌로서 일명 袴이라고도 하며 형태가 꼭 송아지코 같다고 하여 얻은 이름이라 한다. 形制는 길이가 짧으면서 좁고 襠을 봉한 것으로 雜役人の 평상복이며 삼국시대 이래 변함없이 입어져 왔다¹²⁾.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高麗圖經』 供張條에 나오는 紵裳에 관한 내용이다¹³⁾. 이에서 보면 저상의 제도는 겉과 안이 6폭이며 허리에 橫帛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띠를 2개 달았는데 그것은 목욕할 때 입는 옷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고려시대에 목욕용의 옷이었던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그것은 3폭을 한 가랭이로 하여 이어서 말기(橫帛)는 달지 않고 끈만 달아 後日의 여자의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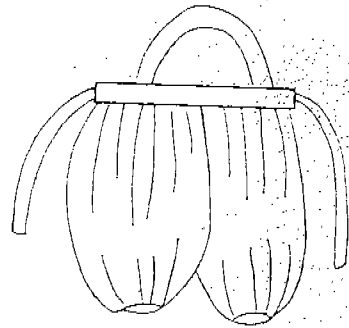
쟁이」와 같이 한 것인데, 일본의 소위 和服의 「하끼모(ハキモ)」와 같은 제도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供張條에서 중국 사신 남성에 대하여 이를 제공한 것이 되어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관인들이 목욕용이 아닌 관복으로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이것이 조선시대에는 국말까지 樂工服으로 잔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림 2-8]에서 보는 것처럼 여자의 服飾으로써 조선시대 전기 말군(襪裙)이라는 것이 그것이었으며, 이것은 「고쟁이」로서 속옷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나. 宋나라 황송묘 出土品과 壁畫속의 女袴

고려시대의 여자바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으로는 거창둔마리 고분 동실 서벽 奉樂人物論[그림 2-9]에서



[그림 2-8] 襪裙, 끈달린 바지(樂學軌範)



[그림 2-9] 치마 밑에 보이는 짧은 바지 居昌 屯馬里 古墳 東室 西壁 奉樂人物圖

12) 정명자, 前掲書, pp. 280~281.

13) 徐兢, 『高麗圖經』, 卷二十一, 「紵裳條」

보는 바와 같이 치마 밑에 입은 바지가 보이는데 좁은 바지라고 생각된다.

고려시대의 여자바지의 유물은 한 점도 없어 송대 유물 속옷을 살펴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송대 유물 속옷은 조선시대 여자바지와도 거의 같으며 고려때도 송과 거의 같을 것으로 본다¹⁴⁾.

남송 황승묘 출토유물은 우리나라 고려시대 복식연구 자료가 부족한 형편에 간접 자료로서 중요하며 당시의 동아세아지역의 복식연구 교류 실태를 규명하는데 가치가 있다.

총 179점의 여복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 바지 종류는 24점으로서 8점이 습褶袴, 15점이 開褶袴 1점이 수장용 無腰無褶袴가 있으며, 옷감은 絹 11점, 羅 10점, 花綾 1점이다.

살펴본 결과 남송 황승묘 출토유물은 조선시대 여자 內衣(바지)와 공통점이 있다. 즉, 합당고 속곳류인 단속곳, 속속곳과 구성양식이 같고, 개당고는 여자바지, 겹바지, 솜바지류와 구성양식은 같고 가랑이의 넓이와 형태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송대의 합당고류는 정창원의 新羅의 여자바지 밑이 막힌 바지와 구성양식이 같고, 개당고는 밑이 터진 바지와 구성양식이 같다.

이로 미루어 보아 정창원의 新羅의 여자바지 형태가 高麗때까지도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III. 朝鮮時代의 內衣(바지)

1. 文獻속의 內衣(바지)

우리 고유복식은 약간의 변모는 있되 서민복과 지배 계급의 언거복 또 여자의 복식에 그대로 존속되어 왔다. 그러므로 고에 있어서도 다만 명칭에만 변화가 있어 朝鮮時代に 와서는 袴를 「바지」라 칭하게 되어 오늘날의 바지라는 복식용어가 되었다. 內衣에 관하여 조선시대 몇몇 문헌에 보여 문헌별로 적어보기로 한다.

朝鮮時代 女袴는 『朝鮮王朝實錄』 태종 9年 3月조에 보면 여고제도는 구습을 따르고 있어 이를 고쳐야 한다고 하였으며 從婢의 襪裙을 禁한다고 했다. 또한 같은 왕 12年 6月조에는 4품 이상의 정처는 露衣襪裙의 착용을 허용한다고 했다. 이어 세조 때에는 영정도 감사 趙廡生의 처가 반가 부녀의 몸으로 襪裙을 입지 않고 말을 타고 외출하다가 禮曹正郎 禹繼蕃이 기생인줄 알고

부레를 하게 되었다는 기록¹⁵⁾에서 반가 부녀들이 보편적으로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襪裙은 內衣로 착용되었으나 겹바지로 착용되기도 하였다¹⁶⁾.

하층계급에서는 계속 바지를 걸옷으로 입는 유습이 남아 있었다. 李裕元의 『林下筆記』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東國婦人の 服은 非禮하다. 新羅는 그대로 高尚하나 高麗에서는 元의 풍속을 따라 불만한 것이 없다. 袴制에 이르러서는 다 넓은 바지를 입고 다님을 매었다. 純祖에 이르기까지 그러했다. 영조 초년경에 兩股의 바지가 있었다. 그 제도가 逆祥袴에 본뻘다. 이는 대개 賤娼이 입었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상하가 다 입는다.」¹⁷⁾

이러한 유행은 궁중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자 의복은 下厚上薄의 특징으로 위는 회장저고리롤 입어 왔고, 아래로 부풀릴 수 있도록 치마 밑의 속옷을 많이 겹쳐 있었는데 평상복에 있어서도 치마 밑에 단속곳을 입었고, 그 밑에는 바지를 입었으며, 또 그 속에 속속곳을 입었고 맨 속에 다리속곳을 입었던 것이다. 이밖에도 상류층에서는 외출할 때 단속곳 위에 비단으로 된 너른바지를 입어 모양을 더하게 하였던 것이며, 정장할 때는 치마를 더욱 부풀리게 하기 위하여 무지기를 입었고, 또 궁중에서는 더욱 중후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대솜치마를 입기도 하였으며¹⁸⁾ 걸옷 바로 아래 입어 전체적으로 속옷을 정리해 주는 역할도 하였다. 또한 겹치마의 페티코트 역할을 한 것이 속옷이었기 때문에 朝鮮시대의 內衣文化는 차원 높은 것이었으며, 이 여고에 우리 민족복의 袴制를 전수해 왔다고 하는데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여자바지(內衣)는 袴衣, 褌衣와 바지로 불리웠으며, 속곳·단속곳 등 후기의 호칭은 우리말 표기로서 褌衣-속옷-속곳으로, 單褌衣-단속옷-단속곳으로 불려진 것이다¹⁹⁾.

14) 박경자, 「「복주남송황승묘」 출토복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논문집, p. 16.

15) 朝鮮王朝實錄,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55, p. 202.

16) 박성실, 『한국사』, 25, 국사편찬위원회, 1984, p. 320.

17) 김경자, 「우리나라 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76, pp. 46~47.

18) 유희경, 「저고리와 친의류」, p. 217.

<표 3-1> 朝鮮시대 문헌에 있는 여자바지 명칭에 따른 분류

名稱	文 獻	備 考
把 持	鄭麟趾가 袴를 破持(바지)라 표현	대전세자궁, 원자궁, 세손궁 (생진, 정조, 추석, 동지) 효현왕후(1837년 2~3월) 대전의대, 비의 부모
	度支定例(袂把持)	
	國婚定例坤(單把持, 襦把持)	
	嘉禮都鑑儀軌(襦把持, 單把持, 把持) 常方定例	
裹 衣	度支定例(袂裹衣)	인현왕후
	國婚定例坤(袂裹衣, 單裹衣)	
	嘉禮都鑑儀軌(袂裹儀, 單裹儀)	
바 디	家禮諺解	
고 의	家禮輯覽 訓蒙字會	
봉 디	宮中撥記	
고장바지	春香傳	
너른바지	春香傳	
속 것	春香傳	

*자료 : 박경자, 한국복식논고, 신구문화사, 1983

조선 시대의 여자의 바지는 완전히 치마 밑에 입는 속옷으로 변모되었다. 바지에 관한 용어는 파지, 바디, 바지, 봉디가 있다.

2. 遺物과 風俗叢 속의 內衣(바지)

가. 出土服飾에 나타난 內衣(바지)

出土服飾이란 古墳移葬時 內棺內에서 屍身과 함께 발견되는 복식류를 말한다. 이는 죽은 사람을 위해 특별히 제작하는 新衣 즉 壽衣 넓은 관내부를 채우기 위한 보충용도와 수의 위에 입혀지는 감의류로 나눌 수 있다. 감의류는 死者의 평시복으로 散衣라고 하며 수의는 葬事에 보내는 예물의 의미로 祿衣로 지칭되기도 하였다. 수의는 襲衣式에서 死者에게 입혀지고 산의류는 소감과 대감의식에서 사용되는데 有官者인 경우 생존시 최고의 예복 즉 단령이 상복으로 입혀지며 配位의 경우

19) 박성실, 前揭書, p. 320.

20) 박성실,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 임진왜란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내외에 관한 부분만 재인용.

匹段 金線段으로 된 長衣, 赤古里 등이 表衣로 입혀진다. 이와같이 감습의에서 사용된 것이 출토복식인 것이다.

본 出土遺物 研究는 壬辰倭亂 勃發(1592년) 以前 卒한 墓主의 出土服飾을 통하여 조선 전기 內衣文化를 규명해 보기로 한다²⁰⁾.

出土服飾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1963년 사도세자와 혜빈옹씨 소생의 청연군주(1754~1821) 합장묘에서 200여점의 복식들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계속해서 도처에서 先墓의 移葬工事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墳墓의 여건에 따라 미이라화된 시신과 함께 복식들이 출토되었다. 출토복식들은 襦衣, 衲衣, 袂單衣 등 4계절 의복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물에 따라 고대나 수구 부분에 때가 묻어 있거나 해진 경우 심지어 기워입은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 소매의 중간, 치마의 앞중심 상부 등이 줄어진 상태로 출토되는 등은 평시복이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정교하게 바느질된 수십점의 복식들이 3~5일이 소요되는 대관(入棺) 때까지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壽衣로 보거나 血痕이나 오물의 부착정도를 보아 수의로 분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수의는 인체 분비물이 가장 심하게 전염되어 있어 수습되는 경우가 드물며 된다고 하여도 매우 불량한 상태에서 세탁 등의 보존처리 과정을 거치면 상당부분 파손되어 진다. 또한 이장시 대부분은 입혀진 상태에서 보완하여 이장하기 때문에 수의류의 수습은 흔치 않으며 거의가 平時用 散衣類이다.

이상으로 조선전기 출토유물에서 발견된 내의는 3가닥으로 된 바지가 각기 다른 분묘에서 출토된 사실은 매우 흥미있는 결과로써 경기도 양주, 고양 경상북도 칠곡 등 지역적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지방에서 동시대에 발견된 것은 당시의 유행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외에 속감 등도 같은 형태이며 이것은 조선조 말기까지 전래되었다. 이것은 여자의 속옷인 관계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전통성을 지니고 있다. 이외에 밑이 트인 너른바지도 함께 출토되었다.

나. 풍속화에 나타난 內衣(바지)

17, 18세기의 풍속화에 의하면 여인은 모두 바지 위에 치마를 입고 있으니 이 당시에는 바지 위에 치마를 입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이는 바지를 내외로 여긴 것이 틀림없다.

[그림 3-1]를 보면 치마 입는 방법 또한 특이하여 폭



[그림 3-1] 거들치마를 입은 여자
자료: 申潤福, 月夜密會, 부분



[그림 3-2] 무릎 밑에 대님을 두른 庶民女
자료: 김원룡, 韓國의 美, 風俗畫



[그림 3-3] 선의 형태가 보이는 女袴
자료: 김원룡, 韓國의 美, 風俗畫



[그림 3-4] 美人化粧, 김홍도, 단속곳을 입고 화장하는 모습
자료: 서울대 박물관

넓은 흰색 바지를 발목까지 오게 입고 걸치마를 걷어올려(거들치마) 허리띠를 매어 속에 입은 바지가 다 보이도록 입었다. 주로 서민계급의 경우이겠지만 조선 초·중기까지만 해도 여인이 넓은 바지를 무릎 밑에서 대님을 쳐 일하기 편하게 한 것이 [그림 3-2]에 보인다. 그리고 주로 양반계급보다는 서민계급의 부녀들의 바지에서 바지부리에 선의 형태가 보이는 [그림 3-3]에서 이는 아마도 서민 여자들이 바지 전체를 비단으로 만들어

입을 수 없었기 때문에 치마 밑으로 보이는 부분인 바지부리 부분에만 비단천으로 처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3-4] 김홍도의 그림에서 단속곳을 입고 화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단속곳이 치마안에 입는 내의 중 가장 겉에 입는 속옷이란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 신윤복의 그림에서 치마안에 바지를 입은 여인의 모습은 치마 안에 입는 내의인데도 호사스럽게 치장한 누비바지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3-5] 치마 아래로 보이는 호사스러운 누비바지(신운복, 夜禁冒行, 일부분)

IV. 近代의 內衣(바지)

1. 開化期 및 近代의 內衣(바지)

한복이 개량화 되어 의복이 간소화되는 추세에 따라 속옷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개화기 및 민족수난기에도 속옷으로 단속곳, 바지, 속속곳, 다리속곳 등이 조선시대 후기에 이어 계속해서 입어졌으며 개화기 이후 서구의 내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부터 종래의 속옷들이 거처장스럽다 하여 하나 둘 사라져 갔으나 하루 아침에 변해간 것은 아니었다.

하의에 있어서는 여전히 치마, 단속곳, 바지, 속곳 등 네가지는 보통이고 겹치마, 속치마, 무지지, 단속곳, 바지(여름에는 고쟁이) 등을 입어야 제대로 갖추어 입는 것이 되었는데 이것은 남성의 하의착용 습관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것으로, 이로 인한 폐단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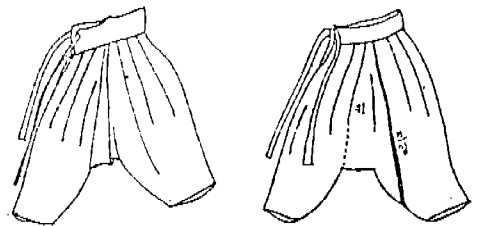
“衣服의 重量을 비교해 볼진대 기력있고 골격 튼튼한 男子들의 옷이 열량중이면 힘적고 골격 약한 女子들의 옷은 스무중량이나 됩니다. …… 西洋男女衣服의 平均重量을 볼진대 男子는 자기 몸무게의 十八分의 一이

요 女子는 자기 몸무게의 二十四分의 一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女子는 男子보다 六分의 一을 가벼울게 입는 것이 안입니다. 여자는 氣力으로 라든지 骨格으로 라든지 勿論 男子들보다 그 만큼은 …… 가벼울게 입어야만 될 것입니다. ……”²¹⁾라고 한 바와 같이 의복 착용의 가지수가 지나치게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착용해야만 하는 의복의 수가 많고 그에 비례하여 중량이 무겁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옷을 입은 사람의 생활이 그 만큼 비활동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옷을 격식대로 입은 부인의 모습은 “절구통가티 똥그렇게”²²⁾, “종을 엮어놓거나 항아리 같다”²³⁾라며 볼품있는 외형을 나타내었다.

개화기 여인들도 긴 저고리 짧은치마에 어울리지도 않는 위의 속곳들을 안에 입었으니, 이것은 여자는 몸의 선까지도 남에게 보여서는 안된다는 종래의 유교적 인습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하겠다²⁴⁾. 그리하여 이러한 복잡하고도 불편한 내의로 바꾸어 입기엔 아직도 시기상조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서양속옷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자 하나 들썩 입기 시작하였는데 즉 속속곳과 다리속곳 대신 「브리이프」와 「팬티」를 입게 되었으며 그 위에 바지, 단속곳을 입었다. 또한 그 위에 어깨허리를 단 속치마를 입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속치마의 시작이라고 하겠다²⁵⁾.

한복 내의중에서 바지만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데,



① 밀이 트임(1920년) ② 밀이 뒤만 트임(1920년)

[그림 4-1] 고쟁이의 변화

자료: 박경자, 한국복식논고, p. 205.

21) 新女性, 大正 13, 11 p. 13~14.

22) 新女性, 大正 13, 11, p. 13.

23) 조효순, “조선후기여성복식과 개량논의”, 『服飾』, 4호,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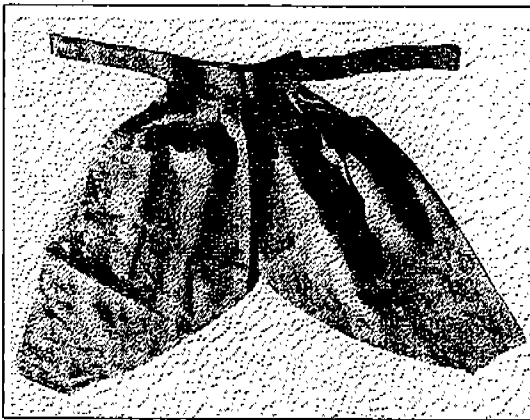
24) 유희경, 『한국복식사 연구』, p. 652.

25) 조효순, 前掲書, p. 191.

그것은 긴 치마의 한복에는 역시 바지를 입어야 겹옷의 모양을 풍성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며 해방 후에는 허리에 고무줄을 넣어, 입고 벗기 편리하게 만든 속바지가 나와 각종 새로운 섬유로 만들어 입게 되었다.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0년대의 옥양목 고쟁이의 두 형태에서 현대 고쟁이로의 변화과정을 볼 수 있는데, 양가랑이를 따로 만들어 밀을 겹치게 하고 주름을 잡아 한 허리에 달아 만든 재래의 것이 있고, 밀을 붙여 재단하여 앞은 막히고 뒤만 겹치게 바느질 한 것이 있다²⁶⁾.

앞과 뒤가 열리던 고쟁이에서 뒤만 열리는 것이 생기고 현재는 밀이 막히고 허리에 고무줄을 넣어 입은 모양이 되었는데 조선시대에는 고쟁이 속에 속속곳, 다리속곳을 입고 고쟁이 위에 단속곳을 입는 등 여러겹 입는 관계로 고쟁이의 밀이 열려도 살이 보이지 않고 고쟁이 속에 옷을 다룰 수 있었다고 보며, 현재는 속옷을 적게 입으므로 밀을 박아 만드는 것이 필요해진 것이라고 본다²⁷⁾. 이는 여자의 생활과 역할이 확대됨으로써 바지의 모양이 변화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것은 또한 고대의 밀이 막히 바지로 되돌아가는 경향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림 4-2] 살창고장주의
자료: 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 슬라이드

2. 내의의 民俗調查

본 조사 연구는 우리나라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토착 서민의 내의문화에 관한 민속학적 조사에 의하여 정리된 것이다.

안동지역 중 하회마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마을로서 토착민을 통하여 그 지방의 고유풍속을 파악하기 좋은 지역이다. 따라서 가능한 유물까지도 총족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기도 하다.

본 조사 대상자들은 현 80세 전후의 여성 노인들로서 1900년대 일제 침략기의 전통 의식이 서서히 붕괴하여 가는 과도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료의 한계성을 보이게 된다.

본 조사에서 다룬 복식의 범위는 생활 전반에 걸쳐 내의의 착용실태를 형태, 명칭, 재료, 특징 등 민속학적인 견지에서 정리하였다.

가. 安東 하회마을의 內衣文化

調査者와 면담한 내용을 內衣의 종류와 명칭, 형태, 세탁과 푸새·건조·염색, 바느질법 등 기타 생활풍속을 정리 기술해 보기로 한다²⁸⁾.

1) 內衣의 種類와 名稱

일제시대를 거쳐 한창 혼란기이므로 내의도 조선말보다 훨씬 단순화되어, 속곳-속바지-단속곳-속치마의 순으로 입었고, 속곳-속바지-단속곳 만큼은 반드시 입어야 했다(1930년 전후).

가장 좋아한 내의의 명칭은 속곳바지와 단속곳으로 속곳바지는 속곳과 바지의 두 속옷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바지로 가장 즐겨 입었던 내의이며 내의 중 가장 겹에 입었던 것이 단속곳으로서 가장 고풍스런 천을 사용하여 만들었고 민촌에서는 단속곳이 속치마 역할까지도 하였으니 꼭 입어야 했던 내의이다.

봄·가을에는 겹바지를 입었고(3~4월, 9~10월), 여름에는 고쟁이나 살창고장주의²⁹⁾를, 겨울에는 누비바지(10~11월)·핫바지(12월부터)를 입었다.

살창고장주의란 일명 다리고장이라고도 하며, 배나 모시 4폭을 한쪽 가랑이로 한 통 넓은 속속곳과 같다. 다만 주름잡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주름 양쪽 끝을 말기에 달고 가운데 부분은 손으로 말아서 구멍이 나게 하여, 통퐁이 잘 되도록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다. 그 모양을 [그림 4-2]에서 볼 수 있으며, 주름 부위의 구멍은 손으로 말아서 곱게 감친다. 즉 여름에

26) 박경자, “우리나라袴에 대한 소고”, 한국복식 논고, 서울: 신구문화사, 1983, p. 205.

27) 박경자, 前掲書, p. 205.

28) 류성룡 대감댁 박필술 종부, 안동 하회마을, 1995. 7. 8.

입는 것으로 허리춤에 살창을 내어 바람들어가라고 만 든 실용적인 내의이다.

속옷을 많이 겹쳐 입는 이유는 조선후기와 같이 많이 겹쳐 입지는 않았으나, 3~4개 정도의 속옷을 입는 이유는 속바지, 단속곳의 넓은 가랑이를 벌리면 그대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편리성을 추구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한 예로서 대·소변을 볼 때 일일이 벗지 않아도 되었고, 또 한가지 편리성은 남녀 유별이라 남편은 사랑에 머물렀는데 남편의 갑작스런 안방 출입시 사랑나누기에도 편리했다고 한다.

2) 內衣의 形態

속옷이 많이 개량되어 속곳과 바지를 하나로 하여 입을 수 있는 속곳바지가 나왔는데 이것의 트임 위치는 뒤이며, 가랑바지나 살창고장주의, 단속곳은 밑에 트임이 있었다.

속속곳·바지의 폭수는 1폭이나 2폭, 크게 하면 3폭으로 하고 단속곳은 거의 3폭으로 하였고, 밑바대는 반폭씩하여 겹치게 하였다. 바지 총 넓이는 6폭으로 만들었다.

속바지의 끈길이는 자기몸에 맞게 몸 뒤를 돌아 앞에서 여밀만큼 각 개인마다 끈 길이는 틀렸으며, 양쪽 끈 길이는 같았다.

<표 4-1> 내의들의 옷감 (소재) 명칭

명칭 계절	속속곳	고쟁이	바 지	단속곳	속치마
春	무 명 옥양목 광단목	무 명 옥양목 광단목	무 명 옥양목 광단목	무명·명주 옥양목 광단목	무 명 옥양목 광단목
夏	삼베·모시	삼베·모시	삼베·모시	삼베·모시	삼베·모시
秋	무명·광목	무명·광목	무명·광목	무명·광목	무명·광목
冬	무 명 광단목	무 명 광단목	무 명 광단목	무 명 광단목	무 명 광단목

끈의 매듭 매는 위치는 각 내의마다 다르지 않았다. 앞 가슴부근에 매었고, 각 끈들이 약간씩 겹치게 매어서 헐었을 정도였으며 어렸을 적에는 졸깃말도 하였다.

3) 內衣의 洗濯

세탁은 하인들이 하여 잘 기억이 안나지만, 냇가에서 빨랫방망이로 두들겨서 빨았으며, 빨에에 앞서 세정제

인 잿물을 먼저 만들었다. 먼이나 마직물은 잿물로 빨았으며 견직물은 팔가루나 녹두가루, 쌀뜨물, 두부순물 정도가 쓰였다. 특히 견직물은 광택을 내기 위해서 생선물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세탁을 할 때에는 상·하 계층을 막론하고 빨래를 한꺼번에 섞어서 빠는 것이 아니라 속옷과 겹옷, 위옷과 아래옷, 웃어른 옷과 아이옷, 여자옷과 남자옷을 각각 구분해서 빠는 것이 세탁의 예의이기도 했다²⁹⁾. 또한 여자의 내의는 식구들 눈에 띄지 않는 뒤결에서 말렸다³¹⁾.

4) 內衣의 푸새와 건조·염색

푸새란 옷에 풀을 먹이는 일로 조선시대에 쓰였던 풀의 종류로는 쌀풀, 밀풀, 녹말풀 따위가 있었다. 내의 뿐만 아니라 모든 세탁에 푸새를 하였다.

쌀풀은 풀기가 오래가지 않고 풀의 힘도 약한 편이어서 주로 울이 굵은 무명이나 모시·배 등의 푸새에 쓰였다.

밀풀은 주로 경상도 지방에서 사용하던 풀인데 매우 질이 좋은 물로서 명주와 같은 고급 옷감을 푸새하는데 좋았다.

녹말풀은 갑자가루를 이용해 만든 풀로 풀기운이 세고 또 때도 잘 끼지 않아 대개 옷의 깃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풍습이었다.

푸새에 이어지는 것은 다듬이질과 다림질이었다. 염색은 하지 않고 천연 천 색깔로 광목, 옥양목, 무명 색깔을 썼다.

5) 바느질법

바느질법은 천에 따라 틀렸다. 삼베는 박음질, 겨울철에 쓰는 옷감은 홈질을 하였는데 이는 뜯어서 빨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 외 공그르기, 사뜨기, 시침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옷을 지었고 술기의 방법도 다양하여 통술, 가름술, 곱술, 술기짓기, 술올리기 등을 옷의 형태에 맞게 바느질 하였다.

V. 結 論

본 稿는 우리나라 여자 내의에 관하여 상고시대에서

29) 살창고장주의는 안동지방의 민속복 바지로 석주선 박물관에 그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30) 조효순, 전계서, p. 458.

31) 권정숙氏, 박필술 종부의 친척

부터 개화기·민족수난기까지 그 형태의 변천과 문화를 민족학적으로 살펴 보았다.

袴는 동북아시아의 몽고에서부터 서남아라비아 반도까지의 유라시아 대륙주변에서 방한적 기능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고원사막에서의 유목생활과 기마생활에서 발전하였다. 이러한 東北亞細亞 袴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은 우리민족이 고대로부터 동이쪽을 근간으로 하여 몽고남부 지방에 있다가 만주평야를 거쳐 한 반도에 이주하여 정착한 민족이므로 북방호복계통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는 몽고 Noin-ula의 복식과 같으며 스키타인 복식과 동계열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여고를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고구려는 고분벽화에서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있는데 바지가랑이가 넓은 대구고, 바지가랑이가 좁은 細袴, 당이 달린 窮袴, 바지길이가 짧은 褌 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는 백제·신라시대에서도 큰 차이 없이 공통적으로 남녀 모두에 나타나며 통일신라 시대 때 동덕왕 복식금제로 여자의 바지 위에 상을 덧입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즈베르크 공화국 사마르칸드시 벽화에는 신라사적의 모습이 있는데 사철이 입고 있는 고가 백제국사의 고와 같다. 이것으로 보아 이 시기의 女袴 형태도 변함없이 상고시대와 신라시대와 같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같은 시기의 유물로 일본 정창원에 보존되어 있는 유물을 살펴본 결과 조선의 속곳과 유형이 비슷하다. 이것으로 통일신라 시기의 여인들이 정창원의 바지와 같은 것을 입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고려시대의 여고는 좁은 바지를 입은 모습이 벽화에 보이며 송의 황승묘 출토 유물에서의 여고 형태는 조선의 여고형태와 거의 같다.

고위에 상을 덧입었던 상고시대의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였던 것이 점차 기본 복식이 바지에서 치마로 바뀌면서 바지만 입는 풍습이 사라지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내의로서 변하여 방한의 기능 외에 미학적 측면에서 치마를 퍼지게 하는 목적을 속옷을 많이 겹입어 패티코우트 역할을 하였다.

출토복식 中 內衣(바지)에 관한 조사에서 3가닥으로 된 방한용 누비바지는 공통된 양식이었고, 그 형태는 많은 변화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개화기·근대에는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여자의 지위가 향상되고 활동적으로 됨에 따라 치마 형태가 축소되지 차츰 내의도 간소화되어 가지수가 줄어

들었고 앞뒤의 밀이 터진 것이 보통이나 앞은 트지 않고 뒤만 터서 밀을 여민 개량바지가 나오고 현재는 테트론, 인조견 등으로 겹바지를 만들어 여름이나 춘추에 입는 것과 타프타와 같은 합성직물에 솜을 넣어 꽃모양이나 기하학적 무늬로 큼직하게 누벼서 세탁에 편하게 한 겨울바지가 있는데 밀을 따로 달지 않고 허리에 고무줄을 넣어서 편리하게 개량한 개량바지가 출현하였다.

근대를 거치는 토착서민의 內衣에 관한 민족학적 조사를 통해 안동 지역의 고유풍속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내의의 종류도 많이 단순화되어 속곳-속바지-단속곳-속치마의 순으로 입었으며, 봄·가을에는 겹바지를 입었고, 여름에는 고쟁이나 살창고장주의를, 겨울에는 누비바지·햇바지를 입었다.

2) 내의의 형태는 속옷이 많이 개량되어 속곳과 바지를 하나로 하여 입을 수 있는 속곳바지가 나왔는데 이것의 트임 위치는 뒤이며, 가랑바지나 살창고장주의, 단속곳은 밀에 트임이 있었고, 가랑이가 무척 넓었다. 속속곳·바지의 폭수는 1폭이나 2폭, 크게 하면 3폭으로 하고 단속곳은 거의 3폭으로 하였고, 속바지의 끈길이는 각 개인마다 끈 길이는 틀렸으며, 양쪽 끈길이는 같았다. 끈의 매듭 매는 위치는 각 내의마다 다르지 않았다.

3) 내의의 구조는 복식 예의 상 잘 안보이는 뒤뜰에서 하였고, 물에 빨아 푸세를 하였다.

4) 내의의 푸세는 쌀풀로 하였고, 밀풀, 녹말풀(감자풀)도 썼다. 염색은 하지 않고 素色으로 광목, 옥양목, 무명 색깔을 썼다.

5) 바느질법은 천에 따라 다르다. 삼베는 박음질, 겨울철에 쓰는 옷감은 홈질을 하였는데 이는 뜯어서 빨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주로 우리나라 女子內衣文化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어느 시대보다도 빠른 속도로 변모해 가는 현 시점에서 전통의 맥, 고유의 맥을 찾아내고 전수하는 작업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순수한 우리 전통 문화와 풍속 속에서 생존했던 古老들이 他界하기 전에 올바른 자료를 수집·정리하여야만 바른 전통과 바른 의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많은 民俗學의 研究와 東·西洋 服飾을 비교·연구하여 우리 복식의 정확한 흐름속에서 서양복식

이 자리잡는 차원높은 服飾文化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高麗圖經, 민족문화추진회, 1978.
 高麗史, 東亞大學校古典研究室, 1982.
 三國史記, 金鍾權譯, 先進文化史, 檀紀 4293.
 三國史記, 신고열 譯解, 서울: 동서문화사, 1976.
 三國史記, 이병도교열, 을유문화사, 1977.
 三國遺事, 李載浩譯, 서울, 명지대학출판부, 1975.
 支那史料抄, 서울: 경인문화사, 1976.
 嘉禮都監儀軌, 장서각본(인조 5년, 1627~고종 43년, 1907).
 家禮言解
 國婚定禮
 家禮集覽
 宮中撥記, 藏書閣
 朝鮮王朝實錄,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檀紀 4288.
 成宗實錄
 燕行錄選集, 赴燕日記 主見諸事 衣冠.
 增補文獻備考, 卷之七十八, 禮考二十五 鹵部.
 韓國服飾史資料選集, 東洋服飾研究院, 1985.
 舊唐書 倭國傳
 梁書, 百濟傳條
 隋書, 경인문화사, 1976.
 唐書, 경인문화사, 1976.
 普書, 경인문화사, 1976.
 魏書列傳百濟條, 경인문화사, 1976.
 禮記, 內廂.
 翰苑, 高麗
 朴珪壽, 居家雜服攷, 卷之二, 內服篇, 高宗年間.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二十九, 士小節 第五, 士典五 祭物, 正祖 十九年, 1795.
 內訓, 仁孝文皇后, 奉祭祀, 第十五.
 李緯, 「四禮便覽」, 卷二, 婚禮
 高福男, 「韓國傳統服飾史研究」, 서울: 일조각.
 高福男, 「한국복식의 유형과 양식」.
 琴基淑, 「조선복식미술」, 서울: 열화당, 1994.
 김동욱,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9.
 김동욱, 「춘향전연구」, 서울: 삼영사, 1979.
 김영숙, 「韓國服飾史 資料選集」, 동양복식, 1985.
 김원용, 한국의 미.
 민숙현·박해경, 「한가람 봄바람에」, 『이화 100년 야사』, 서울: 지인사, 1981.
 박경자, 「우리나라袴에 대한 小考」, 한국복식논고, 서울: 신악문화사, 1983.
 박경자, 「한국복식사론」, 서울: 일지사, 1983.
 박성실, 「한국사」, 25, 국사편찬위원회, 1984, p. 320.
 백영자, 「한국의 복식」, 서울: 경춘사, 1993.
 석주선, 「한국복식사」, 서울: 보신재, 1972.
 新女性, 大正 13, 11.
 『세계문화사대계』, 아시아의 발전, 서울: 대학당, 1979.
 이경자, 「한국복식사론」, 서울: 일지사, 1980.
 李珪泰, 「재미있는 우리옷 이야기」, 서울: 기원원, 1991.
 이여성, 「朝鮮服飾考」, 서울: 白楊堂, 1947.
 이재호, 「한국인물대계 3」, 서울: 박우사, 1972.
 임명미, 「몽고복식」, 서울: 경춘사, 1992.
 유희경, 「저고리와 친의류」
 유희경,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0.
 유희경, 「한국여성복식의 연구」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研究」, 서울: 일지사, 1992.
 趙孝順, 「한국인의 옷」, 서울: 밀알출판사, 199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17, 제22, 199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17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6.
 『韓國史新設』, 교양 한국사연구회, 서울: 양서원, 1988.
 關根眞隆, 「奈良朝服飾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昭和 49年.
 林良一, 「シルクロードと正倉院」, 東京: 平凡社, 昭和 41年, 1966.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 - 古代編」, 東京: 文化出版局, 1979.
 林巳奈夫, 「漢代の文物」, 京都: 京都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76.
 丹野郁·原田二郎, 「서양복식사」, 衣生活研究社, 1976.
 高富子, 「우리나라 婚禮福의 民俗學的 研究」, 단국대학교 한국복식 제 7 호, 1989.
 權桂淳, 「韓國服飾의 文化史的研究」, 효성여자대학교 논문집, 1969.
 김경자, 「우리나라 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76.
 김동욱, 「몽고服飾의 韓國일본의 服飾문화에 끼친 영향」, 아세아服飾연구회, 1983.
 김미자, 「우리나라 삼국시대 의복과 일본 의복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김인숙, 「韓國 古制 形制考索」, 韓國의류학회지, Vol. 13.
 김애란, 「우리나라 袴에 關한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金也之·權瑛淑, 「三國時代服飾小考」,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제 5 집.
 남운숙, 「한국현대여성복식체도의 변천과정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류송옥, “高句麗 服飾研究”, 성균관대학교 논문집, 28호, 1980.
- 박경자, “福州南宋黃昇墓’ 出土服飾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논문집.
- 박성실, “朝鮮前期 出土服飾 研究 — 임진왜란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박춘순, “바지考”,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백영자, “우리나라 袴에 關한 小考”, 대한가정학회지.
- 이경자, “북방계 服飾에의 관심과 服飾史研究”, 服飾 제 5 호.
- 이은주, “中國의 袴褶制”, 안동대학교 논문집, 제 4 호.
- 이진경, “東北亞細亞 袴의 發生 및 傳播에 關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 이항미, “三國時代와 古代日本服飾比較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4.
- 주성희, “일본 정창원의 ‘吳女背子’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정명자, “우리나라 袴에 關한 研究”, 한양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 3 집.
- 조규화, “바지의 기원 및 그 교류”, 국민대학교 논문집, 제16호, 1979.
- 趙孝順, “朝鮮後期女性服飾改良論議”, 服飾 4 호, 1981.
- 趙孝順, “朝鮮後期服飾의 風俗史的研究”,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 최은수, “우리나라 여자 바지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